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포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지도자 여호수아 그의 지도력 II

(여호수아 1:10-18)

원로목사이종윤



2.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특별한 소명감에서 생겼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이니라”(엡 2:10).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한 소명이 있었다. 모세로부터 받은 소명(민 27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수 1장)이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수1:2-6).

여호수아와 갈렙은 38년 전 12명의 정탐꾼 파송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다. 여호수아는 그 땅 거민의 강함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두렵고 떨렸을 것이다. 같이 정탐하러 갔던 나머지 열 명의 보고가 인간적으로 보면 옳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인간의 눈으로 현실을 보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을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려 하심을 믿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과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갈 수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환경을 통해, 또 어떤 이들은 친구를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소명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방면으로 부르심을 받지만 그것을 특별소명이라 부르는 것엔 언제나 우선권(priority)이 주어져야 한다.

3. 그의 지도력은 객관성 있는 계시(말씀)에서 비롯되었다

여호수아는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 ②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 ③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 ④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수 1:7, 8).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관적으로 받아

들이나 그것을 객관적 표준으로 잘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는 것은 주관적이다. 특히 선교사, 외교관, 사업가 등 직업에 대한 문제가 그러하다. 우리는 이 같은 주관적 부름심을 객관적 표준이 되는 성경말씀으로 조명해야 한다.

직장도 없고, 언어능력도 없고, 사명도 없는 이가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교회훈련에 참여했다 해서 그것을 부르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99%의 성경적 객관성이 있고 1%가 인간적 주관성에 의한 결정이라면 그 1%를 성경으로 교정하고 평가해 보아야 한다.

여호수아의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참 부르심은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여호수아는 민수기 32장과 신명기 3장 18 - 20절에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13 - 15절에서 기억하고 자기의 부르심을 확증했다.

4.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하나님 신앙에 있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수 1:5).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과 같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신31:6).

여호수아에게 언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하노라”(히 13:5, 6).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이다.

백성들은 이 같은 신앙을 가진 지도자를 따랐고 또 지도자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다.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17 - 18절)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조국과 교회를 위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자. 여호수아의 신앙과 그의 간증과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요 간증이요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

전교인 특별기도회

3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 본당 2층

성도들의 영적 재충전을 통한 교회 회복을 위한 회복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특별기도회에 동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 인용

3월 2일(금) 서울지법 제 51 민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8카합20259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신청
채 권 자	1. 노문환

주 문

1. 채무자 박노철은 2018. 3. 4. 서울 강남구 삼성로 225, 아주빌딩 지하1층(서울교회 엘림관)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에 대한 장로임직식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위 1항의 장로임직식을 개최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 51부는 서울교회 노문환장로 외 13명이 제기한 박노철 목사측 장로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 주 문**
1. 채무자 박노철은 2018. 3. 4. 서울 강남구 삼성로 225, 아주빌딩 지하1층(서울교회 엘림관)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람들(고*진, 서*학, 이*창, 임*수, 김*섭, 은*장, 강*훈, 이*진, 김*룡, 진*남, 이*흥, 강*조, 박*권, 신*하, 오*복)에 대한 장로임직식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는 위 1항의 장로임직식을 개최하도록 하여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2.13 총회 불법 판결 원천 무효

박노철 목사측 장로 임직 유보 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행정지원본부
03128 서울서흥로 대원빌딩 23, 309호(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5211) 전송 (02)6008-2982 담당 : 홍은혜 실장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2-313호
시행일: 2018. 2. 28.
수신: 박노철 목사
참조: 총회재판국 결정사항 긴급 통지의 건
제목: 총회재판국 결정사항 긴급 통지의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본 재판국 예장총재판 사건 제102-10호(장로선거청원 허락결의 및 공의회 소집 지시 행정처분 행위 무효 확인 등의 소송)관련입니다.
2. 위 판결문과 관련하여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총회 재판국에 접수됨에 따라 2018. 2. 27. 본 재판국 회의에서 논의한 바, 이 건 본 재판국에서 검토기로 결정함에 따라 귀교회 고성진 외 14인의 장로 임직식을 위 이의신청서 검토가 완료 될 때 까지 연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재판국
국장이만
서기 기노

문서번호 예장총재 제102-313호 '총회재판국 결정 사항 긴급 통지의 건'의 제목으로 발송된 공문은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부터 제102-10호 판결에 대

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검토하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밝히며, 이의신청 검토가 끝날 때까지 장로임직식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천지(이단)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적법시 예배 및 설교 방해죄(형법 제 188조), 퇴거불응죄(형법 제 318조 2항),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REVELATION]
매주 천왕에배 시

이종윤
서울교회 원로목사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백도환 김광태/최종희곽선자 이규희 소병국/심화숙 최지욱 정수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서울교회장로회)

나눔의 집

봄을 기다리며 '나눔의집'에서는 판매할 성도님들의 기증물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제의 장소요 나눔의 장소인 601호 나눔의 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나는 안입고, 안쓰지만 누구에게가는 유용한 옷과 가전들을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오시면 판매금으로 구제와 선교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가져오신 물품은 1층 화장실 입구 수거함에 두셔도 되고, 주일에는 601호에 직접 가져 오시면 됩니다.

담당: 권사회 구제부 (조영자 권사, 김유경 권사)

군복무자·입대 예정자 기도회

매일 첫째 주일
오후 3:30/802호

자녀가 군복무중이거나 군복무 예정인 모든 성도·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중·고등부 학부모 기도회

매 주일 12시 40분 (2부예배 후, 504호)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손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김영현 집사 (2교구)

주님! 길가에 봄꽃이 봉우리를 맺는 것을 보며
올해도 여전히 봄이 찾아오나 봅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봄이지만
올해는 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매우 갈급한 가운데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도,
그 사랑으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아무 의미 없이 지나치고 말았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축복만 - 축복만 부르짖고
십자가의 고난은 나의 몫이 아니라고.
고난을 피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요.
주님의 사랑이 당연한 거라고,
주님의 희생도 죽음도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울게 하소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려고
죄의 대가인 죽음까지도 주님께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

주님!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무딘 우리 맘을 성령의 날 선 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전 성도 성경 읽기

성경은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한다

교회는 올 한 해 전 성도 성경 1독, 혹은 2독을 목표로 하며 순례자에 매주 성경읽기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글은 읽는 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지리적, 역사적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다. (편집자 주)



김동진 집사 (3교구)

1. 들어가는 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므로 창조 때부터 우리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는 중에 사람의 영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1: 28) 고 사람에게 지으신 만물의 관리를 맡기셨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처음 사람의 불복종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는 원죄와 후천적 자범죄의 고통 속에서 죄 값을 치러야 하였지만 그 죄에서 스스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속사역의 일환으로 사람의 현실 세계에 직접 들어오시기로 작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속사역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지중해 남동부 해안을 끼고 있는 중동의 작은 한 땅을 거처로 삼으셨고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반항적이고 목이 뻗뻗한 한 민족을 택하여 계획과 말씀을 전하셨다.

거처로 삼은 그곳이 이스라엘이고 민족이 바로 선민이자 택함 받은 백성인 히브리인이자 유대인들

이다.

이 세상 많은 주요 종교의 경전이 대부분 주옥같은 교훈적 글과 위로의 말로 이루어진 반면 성경은 실제 장소와 인물 그리고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치열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끈질기게 전하려는 구약의 오실 메시아와 신약의 오신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저절로 경이로움과 겸손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돌 뿌리 하나, 이름 모를 골짜기, 바람소리까지 눈 여겨 보아야 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죽음으로 때로는 울부짖음 속에 지켜온 간절한 구원과 소망의 발자취를 함께 걸음으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스라엘과 주변의 역사와 지리 등을 정리해 나가기로 한다.

2. 비옥한 초승달 (Fertile Crescent)

- 고대 이스라엘과 중동지방

성경의 주 무대인 고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 그리고 여러 국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무엇인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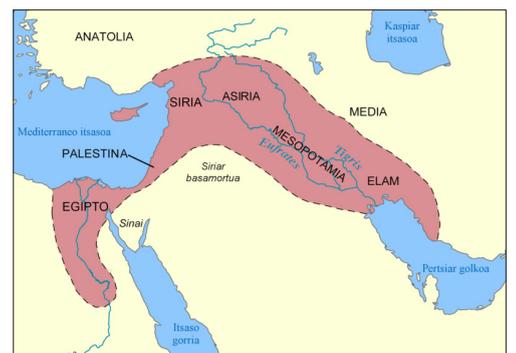
비옥한 초승달 또는 반달형 육토라는 것은 척박한 중동 사막지역에서도 비옥하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와 목축이 잘되는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바벨론을 거쳐 하란 그리고 시리아와 레바논을 지나 이스라엘과 마지막으로 애굽의 나일 상 삼각주까지 마치 초승달 모양의 띠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켜 불려진 이름이다.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중심으로 당연히

정치 문화는 물론 종교가 발달하였으며 세계 4 대 문명 중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나일 강 문명도 모두 이곳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에서 성경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거나 영향을 끼친 주요 지역이나 성읍 등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하기로 한다.

아래 지도에서 붉은 색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성경적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내리도록 돕는 신앙강좌부



서은석 집사
(신앙강좌부 부장)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인 성경에 의지하며 늘 기도와 간구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세상의 온갖 유혹 앞에서 믿음의 세수에 관계없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서울교회의 목회이념 중 하나인 “성경 중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 성경적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힘써 행함으로써 곧 사라질 인간세상의 무의미한 것에 열정을 쏟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 12시 40분부터 1시 30분까지 101호에서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는 신앙강좌부가 1월 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의창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고 성경적으로 점검하여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바울의 옥중서신(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을 시작으로 서신서들을 중심으로 성경 본문의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을 살펴보고 성경의 내용을 성도들이 더 흥미롭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다른 성경 본문과 연결 지어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신앙적 내용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삼도록 전파하고 계십니다.

이런 귀한 강의와 강의 후 반별 교제를 통해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배움으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저 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길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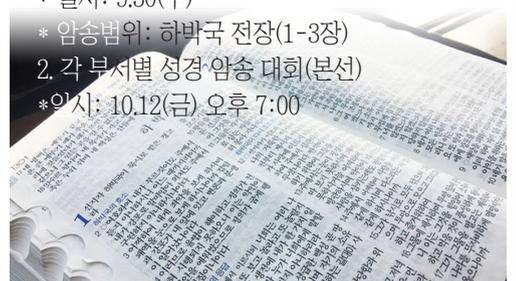
주일 2부 예배 후 101호로 오십시오.

2018 성경 암송 대회

범위: 하박국 전장
예선: 9월 30일(주일)
본선: 10월 12일(금)

2018년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일시: 9.30(주)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일시: 10.12(금) 오후 7:00



동 정

■ 득녀: 14교구 강명석 성도 차선혜 성도(차도훈 장로 남태영 권사 장녀 가정) 2월 28일

■ 금주의 식사: 5교구 소병국 성도, 심화숙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 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2월 25일	주 일	민수기 33		열왕기상 19~22 열왕기하 1~3	
2월 26일	월	민수기 34~36		열왕기하 4~8	
2월 27일	화	신명기 1~2		열왕기하 9~14	
2월 28일	수	신명기 3~4		열왕기하 15~19	
3월 1일	목	신명기 5~7		열왕기하 20~25	
3월 2일	금	신명기 8~10		역대상 1~5	
3월 3일	토	신명기 11~14		역대상 6~8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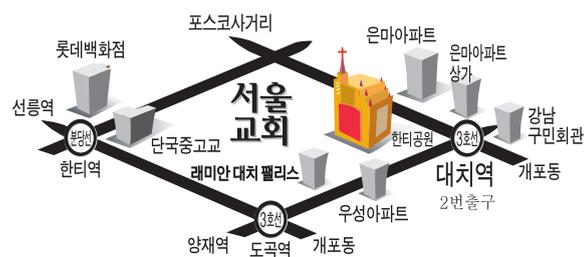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3월 10일(토) 전교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 재충전을 통한 교회 회복을 위한 합심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배	오전 9시	
	II 부 예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세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